

저개발국가에 나눔·사랑·봉사 실천

전북대학교 해외봉사단 발대식...6월 말부터 각 2주간 미얀마·몽골·네팔 등 찾아 봉사활동 펼친다

매년 등·하계에 걸쳐 해외 저개발 국가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는 전북대학교 해외봉사단이 이번 여름 방학에도 해외 저개발국가에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한다.

전북대는 21일 오후 3시 전대학술문화관에서 하계 해외봉사단 발대식과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해외봉사단은 이날 발대식에서 결의문 낭독 등을 통해 세계 속에 전북대를 심고 울 것을 다짐했다.

이번 하계 해외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은 모두 200명. 전북대 학생과 교직원들은 모두 일반 봉사 5개 팀, 의료봉사 3개 팀 등으로 나뉘어 6월 말부터 각 2주간 미얀마와 몽골, 네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르완다 등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친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전북대 해외봉사단은 매년 수백여 명의 학생 및 교직원들이 활동하면서 세계 속에 좋은 대학 이미지를 각인시키며 국제교류 확대와 유학생 유치 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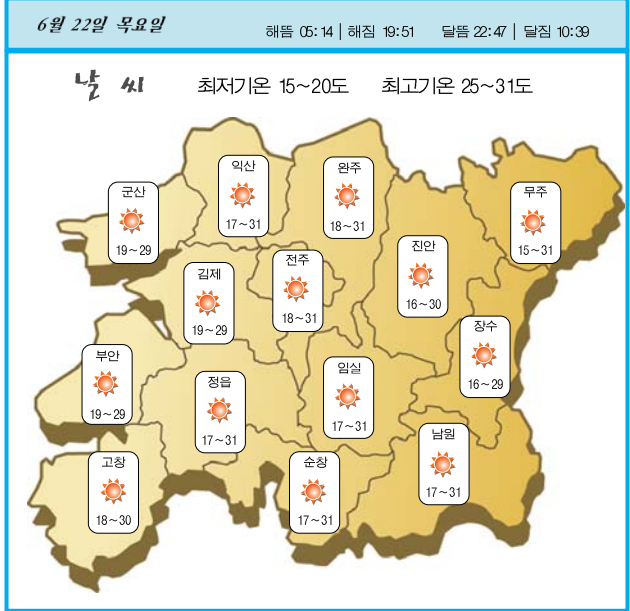
이날 발대식에서 이날호 총장은 "전대인의 해외봉사활동을 더 발전시켜 모범생을 넘어 모험생을 키우는 우리



매년 등·하계에 걸쳐 해외 저개발 국가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는 전북대학교 해외봉사단이 이번 여름 방학에도 해외 저개발국가에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한다. 21일 오후 3시 전대학술문화관에서 하계 해외봉사단 발대식과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대학의 대표 브랜드로 키워나갈 것이다"는 시야를 넓히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이번 해외봉사를 통해 세계를 보

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해은 기자



호남권 혁신학교 포럼 개최

24일 광주교육연수원서...도내 교사 등 100여명 참석

전북과 전남, 광주의 혁신학교 교사들이 만나 혁신학교의 깊이 있는 성장과 도약의 길을 모색하는 제6회 호남권 혁신학교 포럼이 오는 24일 광주교육연수원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새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교육정책 포럼으로 전남북·광주교육청이 공동 주최한다.

도내 혁신학교 담당교사 1백여명 등 3개 시도에서 350여명이 참석하는 이날 포럼은 오전에 '혁신학교 성과와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이란?' 주제로 2시간 동안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진보교육감 이후 혁신정책의 핵심인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7년간의 성과를 진단하게 된다.

또 혁신학교를 넘어서 일반학교의 혁신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사례를 나누고 공감함으로써 새정부 교육정책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혁신정책 추진의 미중물을 찾는다.

오후에는 혁신학교 일반화를 위한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주제로 2시간 동안 분임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 시간에는 부모의 경제, 사회, 문화지식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이 결정되는 위기의 교육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과정 혁신의 방향을 살펴본다. 아울러 교사들의 교육과정 편성권과 평가권을 현실화하는 혁신정책 일반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 정상화를 통한 참학력 신장 및 진로진학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호남권 혁신학교 포럼은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체제 혁신을 통한 학교혁신정책 가속화 방안을 탐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초·중·고등학교의 시도교육청 이관에 따른 교육과정 정책방향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생들의 창의적 공학설계 작품 한자리에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개최...117개팀 참여 본선 경쟁

전북대학교 학생들의 창의적 공학설계(캡스톤 디자인) 작품들을 한자리에 만나볼 수 있는 '2017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가 20일 진수당 일원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LINC+ 사업단과 공학교육혁신센터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어 낸 공학설계 작품을 선보이고 자웅을 겨루는 자리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스 참가 80개 팀과 포스터 전시 발표 37개 등 모두 1백7개 팀이 참여해 본선에서 경쟁했다.

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은 화재 자동 열림 문고리 를 선보인 기계설계공학부 강건우·강민성·박인호·최도영 학생으로 구성된 '스파크팀'이 차지했다.

이 작품은 형상기억합금 스프링을 이용하여 화재 시 문고리의 온도가 올라가면 형상기억합금 스프링이 수축, 잠금장치가 자동으로 열리고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문의 위치를 알려 화재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케 한 것이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2017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문제

분석 및 창의적 해결 능력 수준이 높고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 사업화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호평했다.

고영호 LINC+사업단장은 "이번 대회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제 작품으로 내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종합설계 능력이 배양과 함께 기업체와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더해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구체화 되는 선순환 구조의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고창·부안군 학생 교직원 대상 방사능 누출 대비 매뉴얼 보급

전북도교육청이 고창·부안군 학생 교직원 대상 방사능 누출 시 대피요령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했다.

한빛원자력발전소(영광원전)으로부터 2~3km거리와 30km 반경에 위치한 고창과 부안군의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방사능 누출 시 대피요령을 담고 있다.

매뉴얼에는 방사능 위기경보를 상황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백색비상), 심각(청색비상, 적색비상) 4단계로 구분하여 대응조치 및 행동요령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사건등급 1등급 고장 악화에 따른 주의 단계가 발령되면 고창과 부안의 각급 학교는 상황을 구성하게 된다.

상황반은 정보연락담당, 대피담당, 구호위생담당, 음식물자담담으로 이루어지며 학교장은 학생들을 신속하게 지정된 장소로 대피시키게 된다.

또 학생들에게 방사능 재난 현황과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갑상선 방호약품을 복용하게 한다. /정해은 기자

맑은 완주 청림 슬로건 공모전 수상작 발표

완주교육지원청은 최근 부패방지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소속기관 및 관내 유·초·중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림 슬로건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24편이 접수되었고 그 중 청림을 자연스럽게 생활화 하자는 의미로 응모한 완주공공도서관 박명옥 주무관의 '청림! 물 흐르듯, 실컷! 물 스미듯'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그 밖에 자라나는 아이들과 함께 청렴한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완주 교육가족의 마음을 잘 표현한 '청림새끼 키워내는 맑은교육 청정 완주 (봉서초 박수정 교사)'와 '함께 Green 청림완주 존중받는 Clean교육 (고산초 이승철 교사)'는 우수작과 장려작으로 선정됐다. /원주=이중복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씨름영상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